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⑫ '놀아주는 여자'(2024)

"차별·혐오 대신 공감·이해하길"

드라마 '놀아주는 여자'의 작가가 쓴 기획의도에 이런 말이 있다.

"친구는 가려서 사귀어라.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온 말이다. 검은색을 가까이하면 검어지고, 붉은색을 가까이하면 붉어지니,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백로는 백로끼리 어울리라 하였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의문이 든다.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데 도대체 나쁜 친구를 알아내는 기준은 무엇일까? 아니, 나쁜 친구가 있다고 치자. 그럼 그 나쁜 친구는 어떻게 친구를 가려서 사귈 것인가? 자기보다 좀 덜 나쁜 친구를 찾아야 할까?

'놀아주는 여자'의 서지환(배우 엄태구)은 '불독파'라는 전국 최대 조직폭력 집단 보스의 외아들이다. 아버지 밑에서 조직 생활을 하던 그야말로 '나쁜 친구'이다. 그런 지환이 조직을 물려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불독파를 해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 세 군데에 공장을 둔 '목마른 사슴'이라는 육가공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다. '목마른 사슴'의 특징은 직원의 80%가 전과자라는 점이다. 갱생의 의지가 확고한 전과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회사이다. 더 이상 '까마귀'로 살지 않겠다는 지환의 의지가 담겨 있다.

고은하(배우 한선화)는 '미나와 놀아요'라는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를 만드는 키즈 크리에이터다.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는 은하는 야외 활동이나 귀찮은 행사도 마다하지 않고 자원해서 온몸으로 아이들과 놀아줄 뿐만 아니라 소아병동을 찾아가 봉사하며 아이들의 웃음꽃을 피워 준다. 은하의 목표는 그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안고 살아갈 힘을 주겠다는 것이다.

은하가 이런 꿈을 꾸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은하의 어린 시절은 빚을 지고 잠적한 아버지 때문에 하루가 멀다고 깡패들이 집을 찾아온 기억밖에 없다. 사는 일에 치여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엄마를 대신해 놀아줬던 사람은 주인집 아들 현우 오빠였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 오빠가 무서운 아저씨에게 끌려간 뒤로 소식이 끊겼다. 은하는 현우 오빠가 자신에게 해 주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싶다. 그리고 '현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옛날 그 현우 오빠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버릇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검사 장현우(배우 권율)를 만나는데, 검사는 현우 오빠의 꿈이었다. 과연 이 현우가 그 현우 오빠일까?



사진출처=JTBC공식홈페이지

'까마귀' 노는 곳에 간 '백로' 이야기
'놀아준다'는 상대에 온전한 공감 의미
고통 이해 바른 길로 이끄는 게 보살 삶

작가의 기획 의도에서 힌트를 얻자면 '놀아주는 여자'는 '까마귀' 서지환이 노는 곳에 '백로' 고은하가 어울리면서 시작하는 이야기다. '백로' 고은하는 '까마귀' 서지환의 검정 깃털을 그 자체의 개성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준다. 그래서 "서로의 다른 깃털 색이 함께 어울려 노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보여 주면서 "차별하고 혐오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이해하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드라마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드라마 제목의 '놀아주는'이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차적으로는 현우 오빠가 은하와 놀아주고, 또 은하가 아이들과 놀아주듯이 말 그대로 '놀아준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누군가와 놀아주려면 기본적으로 상대와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키가 작은 상대이면 내가 몸을 낮추어야 하고 나이가 어린 상대라면 나의 행동과 말투도 어린아이의 것이어야 한다. 나의 것만을 고집해서는 제대로 놀아줄 수가 없다. 그러니 '놀아준다'는 말의 깊은 의미는 결국 나를 버리고 온전히 상대에게 공감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 '누구나'에는 보통의 중생은 물론 지옥 중생까지 포함된다. 엄청난 죄를 지어 지옥에서 고통 받는 존재마저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이런 가르침과 조금은 달라 보이는 설명이 있다. 바로 천태불교에서 말하는 '십계호구(十界互具)'라는 것이다. 천태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열 가지로 구별한다. 흔히 알고 있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6도윤회의 세계에,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의 네 세계를 합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열 가지 세계가 각각 나머지 아홉 세계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이 '십계호구(十界互具)'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부처님 세계에도 지옥세계가 갖추어져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 지옥세계가 부처님 세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금방 이해할 수 있지만 도대체 부처님 세계에 어떻게 지옥세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인가?

이 말은 부처님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은 지옥 중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가벼운 고통인지 무거운 고통인지를 따지지 않고 지옥 중생의 고통이 있다면 그 모든 고통을 공감해 주고 이해하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달리 부르는 이름 중에 세간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세간해(世間解)'가 있는 것이다.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나빠 보이는 친구를 그대로 보고만 있으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 '까마귀' 지환의 세계에 '백로' 은하가 뛰어들어 검은 세계를 옅게 해 주듯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 주어서 바른 길로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보살의 삶일 것이다.

시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나의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삶에 공감하여 그들이 나의 세계에 들어올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혹시라도 내 주변에 길을 잃은 까마귀는 없는지, 또 내가 놀아줄 까마귀는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그래야 나도 기꺼이 그에게로 가서 꽃으로 장엄한 백로가 되어줄 수 있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선근 쌓는 공덕과 유정 성숙시켜 다라니 독송 중생 이롭게 이끌어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㉓ 지장보살의 위신력

〈지장십륜경〉에서 강조하는 지장보살의 위신력은 선근을 쌓는 공덕과 '수능가마'나 '사자분신삼매'와 같은 모든 삼매를 따라 안주하고 유정을 성숙시키는 한편, 다시 무수한 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지장보살을 다음과 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모든 공덕의 법을 성취하였으니 뛰어난 공덕 창고이며, 보살의 밝고 뛰어난 눈이요, 열반으로 나아가는 대상(隊商)의 우두머리이다."

또 "지장보살은 일체유정을 이롭고 안락하게 해 그들의 소원을 만족시키는데, 그것은 마치 여의보와 같고 묻어 놓은 창고와 같기 때문이니라. 지장보살은 모든 유정을 성숙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견고한 대원(大願)과 대비와 용맹정진을 저 보살들보다 더 많이 닦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장보살에게 공양해야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시방에서 보살마하살과 성문과 천인, 야차, 건달바 등은 온갖 금·은가루와 갖가지 꽃과 향 등을 지장보살에게 공양 올렸습니다. 그때 지장보살은 이 공양거리를 세존께 회향하면서 게송을 읊습니다.

"하늘과 사람과 용과 신의 공양을 받으시고, 시방의 보살들 모두 와서 받드네. 세상을 구제하는 큰 공덕 있다는 말씀 들었나니, 원하옵건대 저의 훌륭한 공양을 받으소서."

이에 세존께서 다시 게송을 읊으셨습니다.

"견고한 슬기와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모든 유정의 한량없는 고통을 없애나니, 온갖 묘한 즐거움을 베풀기는 보배의 손과 같고, 미혹의 그물 끊는 것은 금강과 같네. 대비와 슬기를 일으키고 정진을 갖추고 묘한 공양을 받들어 세존께 올리며, 바다 같은 지혜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나쁜 길에 빠진 모든 유정을 두려움 없는 언덕에 오르게 하네."

그때에 지장보살은 과거 수많은 부처님으로부터 이어받아 지니고 있던 '다라니'를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다라니의 힘으로 지장보살은

① 세존의 제자인 비구, 비구니와 남녀 신도를 제도하여 모두의 기억과 (불법을)지키려는 뜻을 잊지 않도록 증장시키며

② 수명, 신체, 무병, 힘이 몸에 넘치도록 증장시키며

③ 명성과 자구(資具), 친구와 제자와 깨끗한 계를 증장시키며

④ (설법을)많이 듣는 일과 지혜라고 하는 재보(財寶)를 보시하도록 증장시키며

⑤ 오묘한 선정과 인욕과 방편을 증장시켜 깨달음으로 이끄는 진리의 광명과 대승의 바른 길에 나가는 것을 증장시키며

⑥ 법의 밝음과 유정을 성숙시킴과 대자대비와 일체 선법을 증장시키며

⑦ (부처님의) 오묘한 칭호가 삼계에 두루 가득 차는 일을 증장시키며

⑧ 법비(法雨)가 삼계를 남김없이 적심과 모든 대지의 정기(精氣)와 자양분을 증장시키며

⑨ 일체 중생들이 사업을 잘 이룸과 바른 법의 정기가 선행하도록 증장시키며

⑩ 지혜광명과 육바라밀의 행과 오안(五眼)과 관정(灌頂)을 증장하여 천상에 나는 일과 열반을 증장시키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약속을 하며, 신주(神呪)를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장보살의 신주(神呪)는 65게(揭)의 짧은 내용으로, 신통스러운 주문의 가치를 더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다라니)은 모든 존재의 티끌을 능히 씻고 싸움의 겁[鬪爭劫]과 흐리고 악한 뜻을 맑히며, 흐린 사대(四大)를 능히 맑힙니다. 또 이 다라니는 흐리고 악한 맛과 악한 기운을 맑히고, 희망을 채워주며 가색(농사)을 이루어 줍니다. 이 다라니는 일체의 부처님과 여래세존께서 가호하시며 일체의 보살들로 하여금 가호하고 수희(隨喜)하게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다라니 이름은, '구족수화길상광명대기명주총지(具足水火吉祥光明大記明呪摠持)'라 하며, 제가 과거 수많은 부처님께 직접 받아 지닌 것으로 일체의 선한 법을 증장시키며, 일체의 수용하는 자구(資具)를 증장시킵니다.…이 다라니는 세존의 감로(甘露)의 가르침을 흥성하게 하고 오래 머무르게 하여 삼계의 중생들을 모두 다 이롭고 안락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장보살의 위신력과 그 힘은 수많은 과거세로부터 수행하며 닦아온 것으로서, 오히려 미륵, 길상, 관자재, 보현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지장보살에게 귀의해 이름을 부르고 예배공양하며 소원을 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장보살에게는 모든 중생을 이익 되게 하는 특유의 '다라니'가 있어서 외워서 수지 독송하면, 부처님과 함께 삼계의 중생들을 다 편안하고 이롭게 한다 하니 가히 지장보살의 힘을 알 것만 같습니다.

〈송림사 주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